

‘지능형 CCTV 관리번호 스티커 제작’ 비상벨 위치 부착 시민안전 확보

CCTV 지지대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CCTV합체 안내문에 표기된 CCTV관리번호가 보이지 않아 묻지마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자, 목격자가 열람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능형 CCTV 관리번호 스티커’를 제작하여 CCTV 지지대 1m 비상벨 위치 부착 골든타임내 국민안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 통해 출근하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살인사건 발생 등 최근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 등 무차별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는 서울시의 광역 CCTV 통합 컨트롤타워로 25개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와 112·119상황실 등에 연결해주는 연계 허브 역할과 방범, 재난, 구급 등 긴급상황 시 CCTV를 통해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을 지원해주고 있어 시민들이 CCTV에 관심이 많으며
- 서울시 등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 CCTV합체(제어박스) 부착 안내문은 지면으로부터 3m 정도 높이 CCTV 지지대에 설치하고 있어, 긴급 상황발생시 국민들이 안내문에 표기된 CCTV 관리번호, 관리부서 전화번호 열람이 어려우며, CCTV 안내문에 관할 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전화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은 실정으로 대책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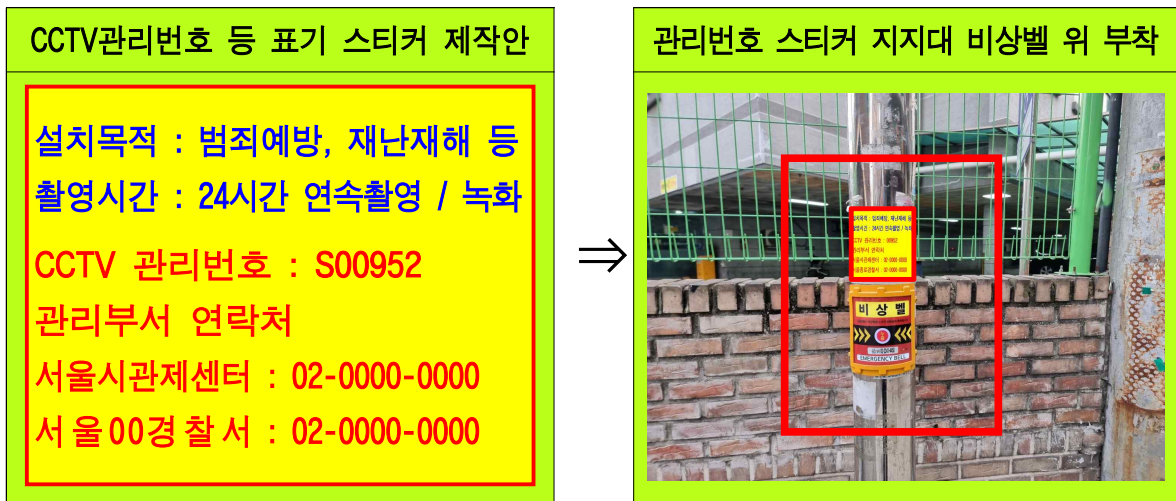
▶ 3m 높이 설치된 ‘보이지 않는 지능형 CCTV 안내문’ 사진



※ 안내문이 3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CCTV 관리번호 등이 보이지 않음.

□ 개선방안

- 서울시에서는 문지마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능형 CCTV 관리번호, 관리부서, 경찰서 112상황실 전화번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관리번호 스티커’를 제작하여 CCTV 지지대 1m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위치에 부착
 - 서울시에서 시행 후 25개 자치구에 공문하달하여 시행토록 권고
 - ▶ CCTV관리번호 스티커 제작, CCTV 지지대 비상벨 위치 부착 사진



※ CCTV함체(제어박스)는 이동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스티커 제작 가능

- 기존 설치된 3m 높이 '지능형 CCTV함체(안내문)'를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은 '형광(야광) 재질 스티커' 제작

□ 기대효과

- '지능형 CCTV관리번호 스티커 제작' 부착으로, 문지마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시, 신고자나 목격자가 CCTV 관리번호, 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전화번호 등을 쉽게 볼 수 있어 신속하게 상황전파 가능하고, 경찰서·소방서 상황실에서 신속한 CCTV 모니터링으로 골든타임내 현장출동 피해자 안전확보 및 피의자 검거 가능
- '현재 3m CCTV함체(제어박스)를 1m 위치로 이동 설치' 하지 않고, 'CCTV 관리번호 스티커 제작' 부착으로 보행자 및 차량(승합차, 택차, 택배 차 등)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파손·훼손 예방 가능